지역 소식통

정읍시, 독감 무료 접종

정읍시가 인플루엔자(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조기·확대 실시한다.

일반인에게 독감으로 알려진 '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이다.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미리 접종받는 것이다.

올해 무료 예방접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1958.12.31. 이전 출생자)으로 4가 백신을 접종한다. 예방접종을 처음 하는 생후 6개월 대상자는 이달 8일부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고, 접종 경력이 있는 만 9세 이하 어린이는 9월 22일부터 1회 접종하게 된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 문의는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nip.cdc.go.kr)를 이용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행복愛너지 이동빨래방 부안 백산면 봉사 호응

부안군 백산면은 지난 8일 2020년 행복愛너지 이동빨래방 봉사활동이 전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부안군자원봉사센터 및 면사무소 담당자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이불 등 빨랫감을 세탁하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취약계층에게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해줘 수혜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백산면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이웃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불빨래 봉사활동을 기획해 준 부안군자원봉사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면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백산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청년 메이커센터' 첫 삽

정읍시, 수제화 명장의 요람… 16억원 투입, 연말 완공

기술노하우 전수·협업 등 최적의 창업 상생 공간 기대

정읍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메이커센터'를 건립해 청년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구축에 나선다.

시는 청년들에게 어려운 취업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메이커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메이커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 일자리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이다.

수제화 기능인의 노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제화 사업을 지방의 저렴한 땅과 인력 공급을 통해 비교우위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읍 특색의 수제화 분야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읍시 '청년 메이커센터' 조감도

청년 메이커센터는 수성동 525-41번지 일원(스타벅스 뒤편)에 자리를 잡게 되며, 국비 7억원, 도비 4억원을 포함 총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면적 753㎡의 2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 4일 착공을 시작해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센터에는 4차산업 시대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메이커(maker)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장이 들어선다. 또, 교육 수료 후 안정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준비공간과 작업실, 회의실 등이 마련된다. 시는 청년 메이커센터가 완공되면 기술 노하우 전수와 협업, 공동 클러스터 활용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최적의 창업 상생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청년들의 든든한 창업공간이 되어줄 청년 메이커센터가 건립되면 수제화 전문 장인 양성을 가속화해 정읍을 수제화의 메카로 키워나가고, 우리 지역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9일 '꽃들의 둥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이성란 전북은행 부행장, 서두원 정읍지점장, 김동형 군산 지역금융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JB 희망의 공부방 제111호' 오픈식을 가졌다.

정읍시 'JB 희망의 공부방' 111호 오픈

영원면 '꽃들의 둥지 지역아동센터' 책장 등 환경개선

정읍시 영원면에 소재한 '꽃들의 둥지 지역아동센터'에 지역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공부방이 마련됐다.

시는 9일 '꽃들의 둥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이성란 전북은행 부행장, 서두원 정읍지점장, 김동형 군산 지역금융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JB 희망의 공부방 제111호' 오픈식을 가졌다.

JB 희망의 공부방은 JB금융그룹(전북은행)이 기업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을 마련해주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전북은행은 아동센터 내 오래된 공부방에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위한 책상과 의자, 책장, 서랍장 등을 설치해 아동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 낡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고, 블라인드 등을 지원해 밝고 깔끔한 공간을 조성했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아동들의 센터 생활의 편리성이 개선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이어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 내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환경을 개선해준 JB금융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새롭게 지원된 공부방에서 아동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나눔을 실천하고,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희망 멘토가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국립산림과학원, 복분자딸기 산업화 '맞손'

우수품종·무병묘 수요 대응

공동연구 사업추진 업무협약

고창군이 복분자딸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복분자딸기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직무육성 '복분자딸기' 품종에 대한 기술이전 ▲복분자딸기 무병묘 생산기술 관련 정보 공유 ▲복분자딸기 산업화 활용에 대한 정보 공유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시험림 지원 및 협력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도출한 연구성과의 현장 실용화로 고창군의 복분자딸기 재배수요와 무병묘 생산 요구를 해결한다. 나아가 복분자딸기 이외의 산림소득자원의 공동연구 사업도 함께 추진해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창군의 복분자딸기 산업은 재배수요증가와 복분자주 위주의 1차 가공산업으로 2000년대 초반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재배지의 노령화 등 노동력 감소와 연작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증가로 인해 복분자딸기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성장이 지체됐다.

이에 고창군은 복분자딸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분자딸기 신규식재 면적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500원/㎡)을 지원하고, 복분자딸기 열매를 농협에 수매하는 농가에게는 1000원/kg의 수매장려금을 지원했다. 또 연작으로 인한 복분자딸기의 피해 개선을 위해 토양개량제 투입 실증시험과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묘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복분자딸기 피해 감소 사업을 펼쳤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복분자딸기 재배관리기술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동학혁명 보드게임 지도사' 14명 배출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 지도사' 14명이 2차례(8월31일, 9월7일)의 교육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보드게임'은 누구나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을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게 게임에 역사 내용을 적용해 제작했다. 보드게임이 모두 끝날 때까지, 공을 많이 세워 가장 많은 수확물을 보유한 사람이 집강소의 집강이 되면서 '동학연대기' 보드게임의 우승자가 된다. 체계적인 학습활동지와 교수자료집을 제작해 동학농민혁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번 양성교육을 수료한 보드게임 지도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동학연대기 보드게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각 지도사들은 각 인물(전봉준, 손화중 등)과 사건(무장기포, 비기탈취 등)을 설명해주면서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몰입을 돕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세화엔스텍 고병석 대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000만원 기탁

부안 출신으로 매년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주)세화엔스텍 고병석 대표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9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을 방문해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해 꾸준한 고향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고병석 대표는 하서면 백련마을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인천에 출향해 열의와 투지로 액체여과기 제조업체인 세화엔스텍을 맨손으로 일궈내 국내 환경산업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우뚝 섰다.

고병석 대표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인천에 정착하게 됐지만 한시도 고향에 대한 마음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고향인 부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매년 장학금 기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고병석 대표는 지난 2017년 경주대지진과 올해 코로나19 사태에도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뜻에서 거액의 성금을 기탁해 몸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회사 사정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잊지 않고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고향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대표님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정성과 성심을 갖고 부안군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